

2020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열 I)

모집단위	학부/학과	수험번호	성명
------	-------	------	----

◆ 유의 사항 ◆

1. 시험 시간은 100분임.
2. 답안은 검은색 펜이나 연필로 작성할 것.
3.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는 드러내지 말 것.
4. 연습은 문제지 여백을 이용할 것.
5. 답안은 해당 문항 답안지에만 작성할 것.

감독확인



이화여자대학교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내 조카 허친(許親)이 집을 짓고서는 ‘통곡헌(慟哭軒)’이란 이름의 편액을 내다 걸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크게 비웃으며 말했다. “세상에는 즐길 일들이 얼마나 많거늘 무엇 때문에 곡(哭)이란 이름을 내세워 집에 편액을 건단 말이나? 게다가 곡이란 상(喪)을 당한 자식이나 버림받은 여인이 하는 행위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자들의 곡소리를 몹시 듣기 싫어한다. 자네가 남들은 기필코 꺼리는 것을 일부러 가져다가 집에 걸어 두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그러자 허친이 이렇게 대꾸하였다. “저는 이 시대가 즐기는 것은 등지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이 시대가 환락을 즐기므로 저는 비애를 좋아하며, 이 세상이 우쭐대고 기분 내기를 좋아하므로 저는 울적하게 지내렵니다. 세상에서 좋아하는 부귀나 영예를 저는 더러운 물건인 양 버립니다. 오직 비천함과 가난, 곤궁과 궁핍이 존재하는 곳을 찾아가 살고 싶고, 하는 일마다 반드시 이 세상과 배치되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미워하는 것은 언제나 곡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능가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곡이란 이름을 내세워 제 집의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그 사연을 듣고서 나는 조카를 비웃은 많은 사람들을 준엄하게 꾸짖었다. “곡하는 것에도 도(道)가 있다. (중략) 시사(時事)가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이 진행되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여 통곡한 가의라는 학자가 있었고, 하얀 비단실이 본바탕을 잃고 다른 색깔로 변하는 것을 슬퍼하여 통곡한 사상이 목적이 있었다. (중략) 여러 군자들이 처한 시대와 비교할 때 오늘날은 훨씬 더 말세에 가깝다. 국가의 일은 날이 갈수록 그릇되어 가고, 선비의 행실은 날이 갈수록 허위에 젖어들며, 친구들끼리 등을 돌리고 저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배신행위는 길이 갈라져 분리됨보다 훨씬 심하다. 또 현명한 선비들이 곤역을 당하는 상황이 막다른 길에 봉착한 처지보다 심하다. 그러므로 모두들 인간 세상 밖으로 숨어버리려는 계획을 짜낸다. 만약 저 여러 군자들이 이 시대를 직접 본다면 어떠한 생각을 품을지 모르겠다. 아무래도 통곡할 겨를도 없이 모두들 팽함이나 굴원이 그랬듯 바위를 가슴에 안고 물에 몸을 던지려 하지는 않을까? 허친이 통곡한다는 이름의 편액을 내건 까닭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통곡이란 편액을 비웃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나] 은하수를 못 보았다는 학생이 있었다. 농이 지나치다고 했더니 서울 하늘에서는 정말 본 일이 없다는 것이었다. 어이가 없어 멍해 있는 내가 보기에 딱했던지 옆의 몇몇 학생도 역시 본 것 같지 않다고 거들었다. (중략)

밤하늘에 부치는 명상만큼 깊고 장중한 것이 흔할까. 어둠이 보석처럼 여문 밤하늘 아래서 별을 우러르지 않고 어느 몽상이 날개를 퍼리라고 꿈엔들 생각해 보랴. 은하수는 별들의 바다, 그것은 별들의 강물, 아니 별 중의 별들이다. 밤하늘 아래 우리들의 명상이, 혹은 우리들의 몽상이 은하수 그 물속에 떡 감지 않고 은하수 그 바다를 건너가 보지 않았던 적이 있었을까. 소년 마리우스에게 있어 별은 단적으로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 그가 죽음을 두려워했던 것도 별을 못 보게 될 것이라는 추측, 그 하나 때문이다시피 했다. 아직도 은하수가 덜 기울었다는 핑계로 잠들려 하지 않고, 오직 은하수가 보고파서 밤을 기다리던 그런 어린 철을 보내지 않은 사람은 몇이나 될까. (중략)

이제 젊은이들은 이 모든 것에 종언을 고한 것이다. 더불어 그들은 밤하늘의 명상과 어둠의 몽상과도 옷소매를 가른 것이다. (중략) 동경을 모르고 욕망 안에 매여 있는 세대 - 그것이 지금의 젊은 세대라는 생각을 해 볼 때가 있다. ‘헌신’이란 것은 잠꼬대에 지나지 않고 오직 ‘소유’만이 절대인 그런 삶을 사는 세대가 있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야수(野獸)의 우리 속에 내던져진 것만큼이나 송연(悚然)한 일이다.

은하수가 말라 버린 하늘 아래에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피안을 향한 그 불빛들이 꺼져 버린 이 어두운 삶의 길목에서는 달리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감상(感傷)을 여름날 미숫가루 물처럼 마시다 간, 시인 윤동주는 모든 그리운 것과 모든 사랑스러운 것을 별에 붙여 비로소 이름 지을 수 있었다. 어머니도 소녀도 시도 그리고 작고 귀여운 짐승에 이르기까지. 별에 붙여 이름이 붙일 때 이 지상의 것들은 초월의 날개를 파닥이며 가볍게 별을 향해 비상하기 시작한다. 인간이 그 영혼의 존재를 느끼는 것도 바로 그때이다. 아울러 자아가 무한과 영원을 향해 열려져 있다는 것을 느끼게도 되는 것이다. 매미 껍질을 벗듯 자아를 넘어서고 집념의 사슬을 끊고 우리들은 더없이 순화되는 것이다. 수액(樹液)이 나무의 속을 돌 듯, 길러 줄 인연이란 오직 헌신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기쁨도 그때 누려지는 것이다. 위대한 것, 구원(久遠)한 절대에의 헌신을 결단하는 것이 정작 동경이라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동경하는 자의 별빛 같은 눈동자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현실의 이쪽을 비추는 전등들의 그 불빛으로는 소유와 집념과 욕구의 영상이 비취질 뿐이다. 요즘의 영화들은 그것을 너무도 잘 보여 준다. 전등으로 비추는 인간 욕구의 파노라마…….

[다] 질문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까지 당신은 철도, 법률가, 의사들을 비난했습니다. 당신은 모든 기계류를 폐기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도대체 문명이란 무엇입니까?”

간디가 대답했다. “문명은 인간에게 의무의 길을 보여 주는 행동 양식입니다. 의무의 이행과 도덕의 준수는 동의어입니다. 도덕을 준수하는 것은 마음과 열정에 대한 자제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알아갑니다. 인도 서부 방언 구자라트어에서 ‘문명’에 해당하는 말은 ‘올바른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 정의가 옳다면, 수많은 작가들이 보여 주었다시피 인도는 다른 누구로부터도 배울 것이 없으며, 배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란 설 새 없이 날아다니는 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이 소유할수록 더 많은 것을 원하고, 그러면서 여전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열정에 탐닉할수록, 더욱 제멋대로 방종하게 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행복이 대개 정신적 상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자라고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며, 가난하다고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종종 부자가 불행해 보일 때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행복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수백만 명은 항상 가난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인지하고서, 우리 조상들은 우리가 사치와 쾌락을 단념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중략) 우리에게는 생명을 잠식하는 경쟁 체계가 없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생업이나 무역에 종사하면서 적정한 보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계를 발명할 줄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노예가 되고 도덕 정신을 상실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조상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심사숙고한 다음, 우리 조상들은 우리 손과 발로 할 수 있는 일들만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건강은 우리 손과 발을 적절하게 사용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 (백인 여성이 남편과 함께 아프리카 로디지아를 여행 중이었다. 기차역은 관광객 및 그들에게 구걸하는 아이들, 그리고 토착 공예품을 파는 원주민 상인들로 아수라장이었다. 여성은 공예품 중에서도 나무로 조각한 작은 사자상에 관심을 보였으나 선뜻 사기를 망설였다.)

“삼 실링 육 펜스라!” 남편은 못 믿겠다는 표정이었다. “다음에 사요.” 여자가 채근했다. “당신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거잖아.” 남편은 의아하다는 듯이 말했다. “아니예요. 다음에 살래요.” 이미 여자가 타고 있는 객차의 선반에는 사자상은 물론이고 수사슴이며 하마상 그리고 코끼리상 등이 넘쳐 나고 있었다. 이 조각상들을 집에 모셔 두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원래 있어야 할 장소를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중략)

남편이 숨을 몰아쉬며 객실로 돌아왔다. 그는 의기양양해 있었다. “자, 이걸 보시라. 일 실링 육 펜스에 샀어.” 그가 사자상을 흔들며 말했다. “뭐라고요?” 그녀가 어이가 없는 듯 말했다. “장난삼아 마지막으로 값을 흥정했지. 그랬더니 기차가 막 떠나려고 할 때 그 노인이 기차를 따라오며 일 실링 육 펜스에 가져가라고 하더군.” 그가 만면에 희색을 띄며 말했다.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여자의 얼굴엔 분노의 빛이 역력했다. 흥분한 여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다. “왜 처음부터 사지 않고 그렇게 뜸을 들였죠? 왜 기차가 떠날 때까지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일 실링 육 펜스에 말이죠.” 여자는 사자상을 남편에게 떠दा밀었다. “이거 당신이 갖고 싶어 했던 것 아니야? 무척 맘에 들어 했잖아.” “물론이에요. 그렇지만 이건 아주 훌륭한 조각품이잖아요.” 여자는 마치 조각품을 보호하려는 것처럼 맹렬하게 말했다. 남편은 망연자실 여자를 바라보고 서 있을 뿐이었다.

여자는 모퉁이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창밖을 무표정하게 응시했다. 갖가지 생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교차하는 것 같았다. 일 실링 육 펜스라! 나무 조각과 다리의 근육과 채찍 같은 꼬리를 사는 데 일 실링 육 펜스라! 그렇게 늑름하게 벌려져 있는 입과 파도처럼 말려 있는 검은 혀에 그토록 정교한 목의 갈기까지 얻는 데 일 실링 육 펜스라! 분노로 인한 열기가 여자의 다리를 타고 목까지 올라와 귀에 모래를 쏟아내는 소리를 쏟아부었다. 그 소리는 한동안 계속되었다. 여자는 속이 메스꺼워짐을 느꼈다.

[마] Are cheaper goods worth the price of worker abuse? Fortunately, many people are waking up to the basic unfairness of world trade and are demanding better deals for the people who do our dirty work. This is called “fair trade.” Fair trade sounds brilliant, but it is not without its drawbacks.

One obvious problem is that fairly traded goods can cost significantly more. Many people, especially those struggling to get by on low incomes, cannot afford to pay the difference. If fair trade really is claiming to help poorer people, should it not be aiming to help poorer consumers as well as poorer producers? There is also the danger that fair trade remains a token gesture that is more about making middle-class, liberal-leaning consumers feel less guilty. If you feel good about a bag of fair-trade coffee in your shopping bag, maybe you will not worry that the rest of the items you purchased were produced by unfair trade practices. In addition,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term fair trade can be misused. For example, the UK Fair Trade symbol certifies only raw materials and not finished goods. You can buy a T-shirt with such a logo made from fair-trade cotton that could, in theory, have been made into a finished article in a sweatshop.

It is for reasons like this that some proponents of fair trade avoid using the term altogether, and promote their products as a step towards “fairer trade.” Achieving truly fair trade means seeing the world in a different way: as a planet of partnership and mutual prosperity rather than plunder and exploitation. Fair trade is not about paying 50 cents more for your coffee. It is about caring for your neighbors even when they’re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

[바] 센트럴 파크나 국회 의사당에서 대리 줄서기와 암표 판매를 금지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센트럴 파크에서 열리는 무료 셰익스피어 공연의 대변인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댔다. “공원에서 셰익스피어 공연을 간절하게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대리 줄서기와 암표 판매 때문에 입장권을 빼앗기고 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공연을 무료로 관람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자유 시장 옹호자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다. 극장 측이 연극을 열렬하게 관람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로 관람석을 채우고 공연이 주는 즐거움을 극대화하고 싶다면, 연극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사람에게 입장권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 그런데 그 사람은 바로 입장권에 최고 가격을 지불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공연에서 최대의 즐거움을 누릴 관객으로 극장을 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입장권 분배를 자유 시장에 맡기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시장이 정하는 가격에 입장권을 판매하든지, 아니면 돈을 받고 대신 줄을 서는 사람과, 가장 높은 가격을 지불하려는 사람에게 입장권을 파는 암표상을 허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 하더라도 자유 시장이 줄서기보다 미덥지 못할 수 있다. 어떤 재화에 기꺼이 돈을 지불한다고 해서 반드시 해당 재화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 가격은 자발적으로 지불하려는 마음만큼이나 지불할 수 있는 능력도 반영하기 때문이다. 셰익스피어 연극이나 레드삭스 경기를 가장 간절하게 관람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도 입장권을 살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을 수 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최고 가격을 지불하고 입장권을 손에 넣은 사람이라도 그 경험의 가치를 전혀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재화가 그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사람에게 돌아가게 하려면 줄서기보다 시장이 언제나 낫다는 경제학자들의 주장에는 의문이 생긴다. 공연이나 경기를 보기 위해 ‘돈을 지불하려는 마음’보다는 기꺼이 ‘줄을 서려는 마음’이 그것을 정말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 레스터 서로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설론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적절한 권력의 분배에 대해 매우 다른 믿음을 갖고 있다. 전자는 ‘1인 1표’라는 정치권력의 완전한 분배가 좋다고 믿는 반면, 후자는 경제적 비적격자를 몰아내어 경제적으로 멸종시키는 것이 경제적 적격자의 의무라고 믿는다. ‘적자생존’과 구매력상의 불평등이 자본주의적 효율성의 모든 것이다.”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어울리기 어려운 정치 체제와 경제 체제가 어떻게 잘 결합하고 상호 작용을 하면서 19세기 이후 크게 번영을 이루어 왔을까? 레스터 서로는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 선출된 정부가 시장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더 평등한 소득 분배를 이루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놓는다. “역사적으로 시장 경제들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경제적 평등을 창출해 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주주의 국가는 평등을 촉진하고 불평등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의 도움을 받아 파국의 상태로 흘러가지 않고 끊임없이 보완될 수 있었던 것이다. 칼레츠키는 이와 비슷하지만 더 적극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그는 자본주의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와 궁합이 잘 맞는 제도라고 주장한다. 자본주의가 존립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민주주의의 도움을 받아 경제 환경에 맞는 새로운 형태로 진화해 왔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 덕분에 자본주의는 그 시스템과 제도가 진화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다. 자본주의는 구부러지기 때문에 부러지지 않는다.”

1 제시문 [가]~[다]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 (1) 제시문 [가]와 [나]의 현실 인식을 대비하고, ‘통곡’과 ‘은하수’의 상징적 의미를 서술하시오. [20점]
- (2) 제시문 [가]의 허친과 [다]의 간디의 현실 대응 방식을 비교하시오. [20점]

2 제시문 [마]의 주장을 바탕으로 제시문 [라]의 남편과 부인의 태도를 설명하시오. [30점]

3 제시문 [사]의 관점에서 제시문 [바]의 ‘대리 줄서기’와 관객 본인의 ‘줄서기’에 대해 논하시오. [30점]